

‘청년이 미래다’ ... 전주시의 청년정책

미래를 키우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청년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의 미래다. 민선6기 이후 전주시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펼치며 청년희망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통이 만들어낸 전주형 청년정책, 전국으로 확대
전주시는 그간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왔다.

대표적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장은 장기화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법제화를 요구해왔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 이어 정부가 받아들여면서 현실화했다.

또한, 시는 지난 민선6기부터 장기화된 취업준비로 인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

을 추진해왔다. 청년 무료건강검진은 올해부터 정부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그간 전주시가 청년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인 전주시 청년정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온 ‘전주시청년희망단’이 있다. 청년희망단은 전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의논하고, 정책안을 만들어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마련해준 청년 정책 사랑방이다.

이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정책제안기구로, 청년희망단이 제안한 정책은 전주시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청년 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 상정된다. 여기서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전주시의 청년 정책으로 시행된다.

실례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운영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을 통해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깡이어 정책 △지역청년 JOB소통 사업 등을 발굴하고 전주시의 실제 청년참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근로체함과 진

직접 정책 의논·정책안 만드는 ‘청년희망단’ 운영
경제 지원 ‘쉼표 프로젝트’ 전개·‘면접정장 대어’ 도

로교육, 자기주도여행, 진로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청년 스스로가 진로 탐색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취업준비에서 벗어나 자아상할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얻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 침체로 힘겨워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는 사업인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청년쉼표 프로젝트 선정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개

인별 심리검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돼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비용, 생활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청년희망도시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고, 꾸준히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전주시가 청년희망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청년희망도시 전주만의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고, 꾸준히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전주시가 청년희망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견고 싶은 북전주세무서 앞 벚꽃로 조성

덕진구, 이달 말까지 보행자 중심 인도 개설키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구정 4대 구정운영방안 중 하나인 ‘사람우선 안전행정’ 적극 추진을 위해 북전주세무서 앞 벚꽃로 일대에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북전주세무서 앞 벚꽃로는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부족해 오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전주시와 세무서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및 주민의 건 반영을 통해 인도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덕진구는 북전주세무서 앞 벚꽃로에 차로 감소 없이 인도개설을 할 수 있도록 북전주세무서 부지를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인도 개설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폭 2~3m, 길이 90m 구간에 인도개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덕진구청과 북전주세무서 사이 담장으로 동시 방문 민원인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담장을 철거하고 구청과 세무서 사이에도 인도를 설치, 보행로를 연결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북전주 세무서 앞 벚꽃로에 인도를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시민 모두 걷고 싶은 도시, 사람우선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시정 상시공유시스템 운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부서간 장벽을 깨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추진 시 타 부서의 업무협조에 응이한 시정 상시공유시스템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 상시공유시스템이란 각 직원 컴퓨터 모니터 하단에 주요 행사, 신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주기로 지정 문자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시정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컴퓨터 대기시간에 시정홍보 내용을 화면보호기를 통해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7일 덕진구에 따르면, 그간 소통행정·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정 상시공유시스템 시행 한달만에 부서간 업무 공유에 따른 직원간 공감대 형성으로 원활한 협업 분위기를 제고하며 전 직원의 전주시 중점사업에 대한 자선스러운 이해 확대가 주민을 위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특히, 시 중점 사업에 대한 정보력강화로 대시민 홍보역할을 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직원들 간의 현안업무 소통은 결국 시민들에게 안정화된 서비스 공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채롭고 내실있는 스마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전주시는 2018년 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과 체납정리실적,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실적 등 세외수입 운영진반에 대해 실시한 전북도의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일반·기타특별회계) 1135억원을 징수해 2017년과 비교해 163억원을 초과 징수했으며, 징수율도 5.9%p 증가했다. 반면, 체납액은 58억원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징수성과로 12개 평가지표에서 모두 탁월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부서의

세입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징수체계를 구축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세외수입부서의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부과·징수 실무 및 전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징수 전문성을 높이고 체납처분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또, 민간·공공부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건전재정 확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화제신고 119



화창한 날씨, 그늘에서 휴식을

화창한 날씨를 보던 7일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학생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도로 미세먼지 모두 흡수 ‘폭풍흡입차’ 도입

전주시, 도내 최초로 2대 운행
팔복동 공단 등 대상 2회 순회

전주시가 차량 운행으로 발생된 도로 위 미세먼지를 모두 빨아들이는 특수차량을 도입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북지역 최초로 ‘도로먼지 폭풍흡입차’ 2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따

라 운행하던 기존 노면청소차와는 달리 도로 중앙인 1~2차선을 따라 운행해 도로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유해 중금속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전주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배출현황’ 자료에서 전주지역 미세먼지 발생량의 대부분이 도로 이동오염원과 도로 재비산먼지 등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을 책임질 흡입차량은 교통 혼잡시간을 피하고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교통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대에 운영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도로먼지 흡입차량 시범운행에 앞서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운행노선 및 작업방식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맑은공기추진단 관계자는 “도로먼지 흡입차량은 작업효과를 고려해 평균 10~15km 정도의 낮은 속도로 주행해야 하는 만큼, 일시적인 차량 소통 지체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운전 서툰 여성·노인 노려 고의로 차량 들이받아’

경찰, 보험금 1억원 받아챤건 40대 보험설계사 구속

4년간 운전이 서툰 여성 등을 상대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1억원을 받아챤건 40대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4년 간 진로변경이 서툰 여성과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사습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확보해 고의사고 여부를 분석 의뢰했다.

분석 결과 경찰은 A씨가 진로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미세하게 핸들을 조향해 충돌하는 등 고의사고를 야기했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며 “경미한 사고나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연히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기자

문화예술단체 ‘공감’

11일 공감페스타 개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 친지 지인들을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공감콘서트가 열린다.

문화예술단체 ‘공감’은 개인날 이후’의 주관으로 제2회 공감페스타를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에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주최자인 ‘공감’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문화예술지원이 부족한 전주에서 최후한 공감대표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마련됐다.

최 대표는 수십년 동안 전주에서 음악관련 문화 기획을 펼치온 토박이 예술인으로서, 그는 이번 콘서트를 문화예술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무소의 뿔처럼 뚝뚝뚝 겹겹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김민주 피아니스트와 난타타울림, 개인날 오후 밴드, 쉼표밴드 Genius, 미야 밴드 등이 총출동해 관객들에게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페스타에는 열정과 재능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성토건중기 김대일 대표, 율천공업 양은오 대표, 한주디엔티 정인정 대표, 빅토리공인중개, 법률사무소 백록 이삼일 변호사 등 지역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자들이 도움을 줬다. /송효철 기자

어린이날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소아 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암 예방 교육’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지역암센터가 주관한 행사는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과 3일 진안군 소재 ‘미아꿈 유치원, 진안어린이집’을 방문, 유아들이 교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연동화와 다양한 놀이를 통한 암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3세에서 5세의 유아 8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암 예방 동화책 ‘어느날 갑자기’를 바탕으로 구연동화와 막대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김영태 기자

출근시간대 신체 일부

노출한 공무원 경찰에 덜미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물색, 신체 일부를 삼습적으로 노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연음악 혐의로 군산시 소속 공무원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경 군산시 수송동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근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군산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인사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도내 모 장애인협회장 구속기소

5년간 공공 수억원을 가로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구금된 상태로 재판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협회장 A(63)씨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공공 계좌와 체크카드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 2000만원 상당을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